

1장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과 바로의 핍박

1-18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 되었던 데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록한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야곱의 후손이 번성하자 바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였다. 바로는 노역, 산파, 나일강을 이용하여서 여호와와 언약이 있는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으로 자처하는 바로와 여호와 사이에 ‘누가 참 신인가’ 하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바로와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다.

1. 열두 아들과 열두 지파의 이름 (1:1-7)

1:1-7은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사실을 이야기하였고(창 46:8) 이어서 열두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를 따라서 기록하였다(창조. 창 35:23-26; 46:8-26). 야곱의 가족 70인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게 하셨다(1:7).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하는 창조의 복이 그들에게서 성취되었고, 동시에 족장들에게 하신 그들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창 15:5; 28:14).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1:1)은 ‘이스라엘 자손’(1:7)이 되어서 열두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족장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을 주셨고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사실은 가나안 땅을 주실 약속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우리는 출애굽기 처음 몇 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동시에 그 언약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어간다.

2. 바로의 세 가지 핍박 (1:8-22)

1) 노역을 통한 핍박 (1:8-14)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고, 창조의 본의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복을 자기의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켜서 종으로 부리려고 하였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역과 연결시켰다. 바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자기들보다 많고 더 강하므로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하자고 한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의 편을 들어서 그들과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구수가 늘었다고 하여서 반역을 꾀하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바로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서 자기 백성에게 호소하였다.

바로는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고 힘든 일을 시켰다. ‘감독’은 노예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직위다. 감독은 자기들 수하에 이스라엘 패장(牌長)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5:10-21).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대하자고 말한 바로는 이스라엘의 패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탄압하려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다(1:12). 압제의 결과는 바로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난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섬긴다’(아바드)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13-14에는 그 단어가 다섯 번 나온다.

13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혹독하게 일(service)을 시켰다.

14 가혹한 일(service),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모든 밭일 (service)과 같은

온갖 일(service)을

혹독하게 시켜서(service)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바로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강조하여 가르쳤다.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로를 섬기는 것은 속박과 죽음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로를 섬기는 것은 속박과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와 생명이다. 여기에 사용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표시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3:12). 출애굽의 구원은 단지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2) 산파를 통한 핍박 (1:15-21)

고역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를 억제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바로는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였다. 그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를 불러서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리라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그 여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1:20a)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는데(1:21)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을 번성케 하고 심히 강대하게 하는 것(1:20b)과 연결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집도 세워 주셨다. 산파라는 미미한 직업을 가진 여인들이었으나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들의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 주셨다고 기록한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는 직명으로 나오고 실제 이름이 나오지 않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님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3) 남아 살해를 통한 핍박 (1:22)

산파를 통한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베일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바로는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다. 산파에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었다.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였는데”, ‘그의 모든 신민’(臣民)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을 가리킨다(참조. 1:9). 이제 이집트 사람 전체가 이 일에 가담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로 인한 무력적인 위협을 줄이고 히브리 여자들을 종으로 부리려는 계획에 이집트 사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바로의 잔인한 모습이 좀 더 분명히 나타났다.

목상과 실천:

열두 아들에서 열두 지파로, 바로의 악한 시도를 이용하는 여호와의 능력

1. 열두 아들에서 열두 지파로

요셉의 죽음과 유언을 기록한 다음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1:7). 400년의 침묵의 기간은 무의미한 시기가 아니라 족장들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기간이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언약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었다. 출애굽기의 이러한 서술은 간단하면서도 창세기에서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대하면서 읽게 한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1:17에서 산파의 믿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이해되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시기의 역사를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로 설명한다(신 10:22; 26:5; 시 105:24 등 참조).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서는 창세기 50:20과 같은 언급이 없다.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역사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므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후 5:7).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열두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비록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의 교회에 많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를 이루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2. 바로의 악한 시도를 이용하는 여호와와 능력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셋째 정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설 것이고 이집트의 군대는 사해의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생명과 사망이 바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전개된다. 이것은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대립인 것이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행동 안에서 구속자 모세의 등장을 위한 배경을 마련해 놓으셨다. 바로의 행동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의 이러한 획책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사 29:14; 렘 8:9; 9:23).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바로 시도는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그분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창 50:20).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지만 시편 105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시 105:24-25)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번성한 사실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태도를 바꾼 사실 모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하고 있다. 바로가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의 일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다.

바로가 언약의 자손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힘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을 파기하려는 것이었다(창 3:15).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사이의 표면적인 대립의 이면(裏面)에는 여호와와 사탄의 대립이 있다.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역사의 압박과 해방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에 반대하는 세상 나라의 대립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 말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막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꾀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창 3:15; 롬 8:28). 사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없애려 하였으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졌다.

1장 익힘 문제

- 1)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5점)

- 2)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6-7절)
2.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였습니까? (10절)
- 2) 바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건축하게 한 국고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1절)
- 3)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 4) 바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다섯 번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13-14절)
3. 1) 히브리 신파들이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살려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 2)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5절)
- 3)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1절)
- 4)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니까? (7, 12, 20절)
4. 바르는 모든 신민에게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22절)
5.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바르의 반대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러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